

## 홍콩 · 동남아시아 아티지가격 상승

2/4분기 홍콩과 싱가포르의 아티지가격이 820~840달러를 기록, 톤당 20~40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아티지 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국 아티지 생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주도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한국 업체들을 뒤이어 가격인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주요 아티지 수출업체인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는 미국의 아티지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아티지 공급은 부족할 실정이다.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대미 아티지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 한국의 대미 아티지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연간 40만톤 수준이던 한국의 아시아 지역 아티지 수출이 절반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한국의 아티지 생산업체들은 대미 아티지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백상지 가격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펄프가격 및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제지, 사원자녀 생태체험학습 실시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최근 사원자녀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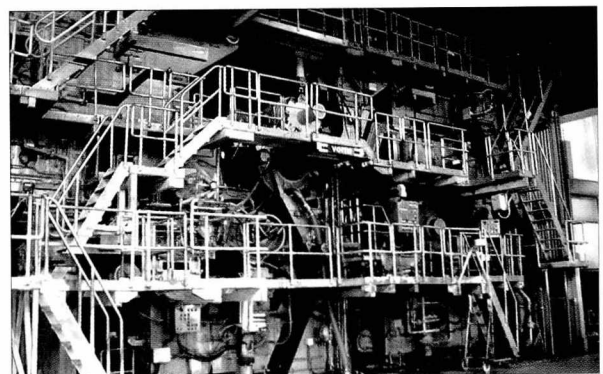
초등학교 3~6학년의 사원자녀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생태체험 학습은 태화강 주변 자연생태환경에 대해 학습하고 나뭇가지 등 자연도구를 이용한 만들기 시간으로 진행된 오전 프로그램과 미꾸라지 잡기놀이 및 물놀이 체험 등의 오후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제지 측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사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행사를 통해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에 한층 더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무림, 2008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 시상식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지난 9월 6일 본사 리프레시룸에서 2008년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 임직원이 9월 월례회인 '한모임'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무림인의 쉼'을 주제로 대상을 받은 박영현/방정아 학생(이화여대4) 외에도 본선 수상 8개팀이 참가, 임직원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대학생 예비디자이너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무림달력디자인 공모전은 자유로운 상상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해 1년을 12개월(2008년 1~12월)이 아니라 14개월(2007년 11월~2008년 12월)로 설정했다. 무림은 대상 작품으로 탁상용 달력을, 최우수상 작품으로 벽걸이용 달력을 제작해 10월중 직원과 고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 고성능 가압탈수장치 신설



이엔페이퍼 신탄진공장은 지난 8월 25일 고성능 가압탈수장치인 슈프레스(Shoe-press)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슈프레스는 종이를 제조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의 하나인 가압탈수장치의 성능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킨 설비다. 이엔페이퍼는 슈프레스 설비 장착으로 생산속도 향상은 물론, 건조효율 증대에 따른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지필연결장치를

신설하여 생산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이와 관련 이엔페이퍼는 “이번 시설투자를 통해 신탄진공장은 10% 이상의 생산량 증대 효과와 품질향상 및 원가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최고 효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게 됐다” 고 전했다.

## 이엔페이퍼, 아산공장장 이취임

이엔페이퍼는 지난 8월 27일 아산공장에서 공장장 이취임식을 갖고, 이규용 전임 공장장의 뒤를 이어 이용호 공장장이 새로 취임했다. 이용호 신임 공장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간의 화합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 문화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생산 지중의 다변화를 실현하여 아산공장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 무림페이퍼, 남강사랑 그림축제 개최

무림페이퍼는 지난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제5회 남강사랑 그림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남강사랑 그림축제는 태풍과 폭우 등 좋지 못한 기상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의 진주지역 초등학교생과 가족, 인솔교사 등 총 1500명이 참석,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태풍은 걷혔으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

해 준비한 오후 공연을 취소하고 오전의 그림 그리기 행사만 진행한 이날 그림축제에는 행사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초등학교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드는 등 참여 열의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이날 그림축제의 주제는 '나의 꿈과 희망'으로 아이들은 저마다 화폭에 자신의 미래를 담는데 분주했다.

무림페이퍼는 9월 말 회사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시상식은 10월 초에 할 예정이다.



## 한국제지 창립 50년 엠블럼 수상작 발표

한국제지가 최근 창립 50주년을 기념 엠블럼 공모전을 실시했다.

한국제지 및 관계사 임직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엠블럼 공모는 총 61점의 우수한 작품이 접수된 결과, 최우수작 조가희(한국팩키지 경영관리팀), 우수작 김일규(한국제지 온산공장 가공파트), 가작 최창수(온산공장 기술기획팀 생산관리파트), 서범관(온산공장 초지1파트) 등 총 4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상금 100만원이 전달된 최우수 당선작은 한국제지 관련 인쇄물 및 홈페이지 등에 한국제지 50주년 기념 공식 엠블럼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북미, 아시아산 아트지 수입 증가

지난 몇 달 동안 연산 100만톤 규모에 달하는 북미 아트지 생산설비가 폐쇄됨에 따라 북미 아트지 생산업체들은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본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산 아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설비폐쇄로 인한 예전과 같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인쇄용지 생산업체들은 일본 최대 무역업체 중 하나인 마루베니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루베니는 오지페이퍼, 니폰페이퍼, 렌고 등 일본 굴지의 제지업체들의 북미 수출량을 30만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본 제지업체들의 북미시장 공략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일본제지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